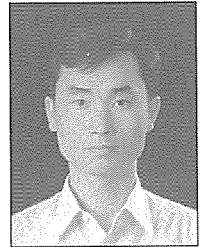


생산과 유통을 통합한 운영사례



이재범 대표
천모산유기영농조합

1997년 5월. 영동의 한 작은 산골마을에서 마음을 맞는 사람들 6명이 모여 조합을 설립하였다. 대부분 농사를 오래부터 해왔던 것이 아니고 나 또한 태어난 것이 읍내일 뿐 대부분의 시간은 도시에서 자랐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는 거리가 먼 농업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평소 작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이기도 하였다. 천안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뒷산 중턱에 있는 작은 폐가가 있었는데 그곳의 텃밭을 일궈본 것이 인연이 되어 농사일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99년까지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으므로 마을 어른들과 함께 일반 관행농법의

벼, 고추, 포도와 기타 작물을 길러보았으나 태평농법의 이영문씨에 대한 정보와 관련서적을 접하면서 친환경농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친환경농법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땅도 살리고 먹거리도 살릴 수 있는 길은 기존의 관행농업이 아닌 친환경농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부분 젊은 영농인들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젊은 피를 끓게 하고 도전해보게 하는 또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농사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농업에 대해 일가견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처음 시작해보는 친환경농업은 우리에게 더 많은 땀과 비용에 비해 적은 결실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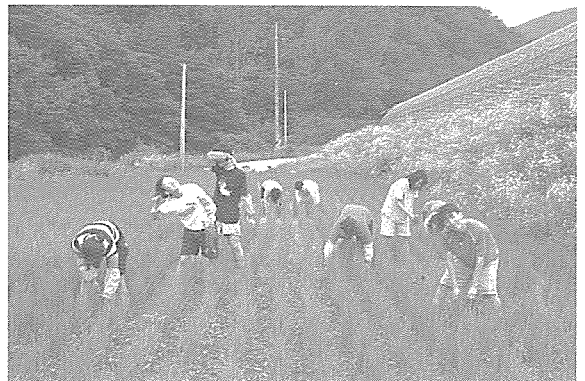
친환경농업을 위해 여러 가지 농법을 시도해 보았다. 태평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EM농법, 자연농법 등 여러 가지의 농법들을 시도해 보았다. 다른 곳에서 성공하고 있었던 또 다른 농법인 오리농법은 시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곳의 논들이 조막논인 데다가 서로 떨어져 있고, 산이 인접하여 있어 족제비와 너구리에게 공격받기 쉽기 때문이었다. 한때 포도밭 하나 전체를 망으로 둘러싸고 그 안에 닭을 키워 바닥에 있는 풀을 잡도록 한 적이 있었는

데 한해만 해보고 그만 두었다. 밤만 되면 족제비들이 내려와 잘 쳐놓은 망의 바닥을 파고 들어와서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다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여러 가지 농법을 시도할 때마다 한해가 가고 두해가 가듯 큰 성과를 못 올리는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갔다. 이것은 각 농법에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각기의 특성에 맞는 노하우가 크게 없는데다가 노하우를 쌓을 시간과 땅을 만들 사이 없이 다른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에서 기인된 문제였고 농업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인드에 잘못이 있었다.



2002년 3월에 친환경뿐만 아니라 도농 녹색교류라는 특별한 주제의 교육이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주관 하에 3개월의 과정으로 개설되게 되었다. 이 때의 교육은 농업과 관련하여 받은 교육으로서는 내게 가장 긴 교육이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의 내용과 실질적 여러 사례들은 나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시점의 전환을 가져다 준 계기이기도 하였으며 전국 각지에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축복과도 같았다. 이때부터 도농교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였고, 작은 이벤트라도 열면서 도시사람들을 직접 농사나 체험에 연결하기 시작하였다. 농업과 민속놀이와 관련한 여름캠프, 동계캠프를 열어보기

도 하였으며 마을 주민과 함께 포도축제도 개최해보았다. 또한 주말농장도 만들어보기도 하였다. 대도시 근교에 있는 주말농장의 벤치마킹과는 달리 도회지와 떨어져 있는 이곳은 주 5일제 근무라는 좋은 조건이 생겨났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단지 농사를 쳐보기 위하여 주말에 많은 돈을 들여 이곳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주말농장 대신 포도나무 한그루, 고추, 벼 등 몇 가지 품목을 묶어 대신 길러주고 추수하여 보내주는 방식으로 지금은 운영하고 있다.



몇 해 동안 농사를 해보면서 시기를 놓쳐 작물이 자라지 못하거나 풀이 무성하게 올라와 인력으로 제초하는 귀한 시간과 힘을 소비하면서 실패를 거듭할 때 마을 분들이 작물의 꼴을 보고 동네창피하다는 얘기를 들을 땐 친환경농업에 대한 회의가 올라오기도 하였었다. 하지만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아 얼마 되지 않아 고추농사로 마을 어른들께 인정받게 된 것이었다. 고추 농사가 마을의 고추 농사 보다 계속해서 잘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론 동네 분들도 그것만큼은 잘 짓는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 지금은 과일도 훨씬 맛있게 잘되고 있다. 친환경농업을 설득하여 마을 분들도 함께해보고자 하였으나 한 해 동안만 함께 해보았을 뿐이다. 그 이유는 관행농업

에 비해 드는 비용과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어른들이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의 농사지만 함께 친환경 농사를 하자는 분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시험재배에 빠져 있는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을 하지 못하고 사는 바람에 오래전에 시작하였음에도 현재 “유기전환기재배인증”까지 밖에 따지 못하였다. 하지만 영동군내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이 워낙 드물어 친환경관련 교육이 있으면 군과 면에서도 꼭 우리에게 교육을 추천하여주신다. 친환경 인증을 늦추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정직하게 기르는데 꼭 인증이 필요할까하는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고객이라면 정직과 신뢰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하였던 실수이기도 했다.

농산물 수입은 경영을 어렵게만 하였다. 전문성이 없었는데다가 시험재배가 많다 보니 더더욱 그러하였다. 그리하여 가공상품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로 결정하고 가공장을 건립하였다. 지금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던 곳에 만들었던 가공장을 좋은 폐교를 임대하여 이전하여 가동 중이다. 생산품으로는 우리가 짓고 있는 농사와 관련된 상품은 포도즙과 배즙이 있고 그 외의 농

산물로는 적절한 상품을 만들 아이템이 없어 보류중이며 건강과 관련한 죽염과 배변과 장기능을 도와주는 함초환을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는 직접 재배한 고추와 콩으로 만든 유기농 고추장과 된장을 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농사가 아무리 잘되고 가공 상품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판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 포도, 배추, 약초, 배, 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 여러 품종이 있지만 청과나 시장에 내는 것은 일부뿐이다. 친환경인증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재배 상품 값으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했으며 생산량이 적어 적절한 거래처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수익도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이때를 즈음하여 신선고를 홈페이지(www.shinsunkol.com)를 만들게 되었는데 지구사랑 인간사랑의 친환경 커뮤니티의 성격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드는 돈도 만만하지 않은 관계로 디자이너 없이 나 혼자 만들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세련미가 없는 촌티 나는 곳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농촌의 홈페이지다운 느낌은 드는 것 같다. 이곳에 “시골장터”라는 쇼핑몰을 만들어 넣고, 도시와 연결하여 조합원이나 판매자를 모집해보기도 하였다.

자체 생산물을 판매하면서 나타난 큰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몇 가지 되지 않는 품목을 사거나 쇼핑하기 위하여 신선고를 찾지 않는다는데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큰 조직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물품을 갖추는 것이었다. 큰조직으로 들어가는 데 생산량의 한계도 있고 하여 시작은 어렵었지만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여 유통을 시작하게 되었다. 농산물과 관련된 것이라 수익은 낮

았지만 유통을 시작한 뒤부터 전체 매출은 몇 배로 증가할 수 있었다. 신선고을 쇼핑몰인 시골장터는 특별한 회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것은 단골이 되면 될수록 가격을 낮추어 주는 방식이다. 고객과 판매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거래 이상의 묘미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찾아오시는 분만큼은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

작물을 생산해보고, 유통해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정직한 생산자를 엮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외고집처럼 보일지라도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사회 현실이다 보니 그런 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일한 방식이 그러하다 보니 이러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을 만드는 것이 나의 꿈 중에 하나이다. 유통을 하되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자들에게도 고객에게도 득이 될 수 있는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이 비전이라 하겠다.

연회비 미납 회원분들께 알립니다~!

농업기술회보 연회원 여러분!
 더욱 발전하는 회보를 위하여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년 구독 기간이 완료 되신 회원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농협 067-01-224657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우체국 012211-01-000320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일은행 327-20-0160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 후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회보』 구독 1년이 지난 연회원 일 경우, 연회비 : 10,000원
 평생구독을 원하실 경우, 평생회원비 : 100,000원